

# 임상실습을 수료한 간호대학생의 책임성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은숙<sup>1</sup>, 장은실<sup>2\*</sup>

<sup>1</sup>동의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sup>2</sup>경남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The Effects of Responsibilit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who have Completed Clinical Practice

Eun-Sook Lee<sup>1</sup>, Eun-Sil Jang<sup>2\*</sup>

<sup>1</sup>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onggeui University

<sup>2</sup>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nam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수료한 간호대학생의 책임성과 비판적 사고성향 정도를 파악하고,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019년 12월 11일-13일까지 일개 대학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119부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임상수행능력은 책임성( $r=.53, p<.001$ )과 비판적 사고성향( $r=.71, p<.001$ )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비판적 사고성향( $\beta=.56$ )이 가장 높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책임성( $\beta=.32$ ), 임상실습 만족도( $\beta=.13$ )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력은 52%이었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성향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육이 임상실습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책임성,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 간호대학생, 임상실습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sponsibility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identify influencing factors of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who have completed clinical practice. Data collection was performed from Dec. 11th, 2019 to Dec. 13th. A total of 119 4th grade nursing students were se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25.0.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correlated factors of clinical competence included responsibility( $r=.53, p<.001$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r=.71, p<.001$ ). The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competence wer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beta=.56, p<.001$ ), responsibility( $\beta=.32, p<.001$ ),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beta=.13, p=.012$ ). These factors accounted for 52% of the clinical competence( $p<.001$ ).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educational programs so that concrete and practical education for reinforci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responsibility can be performed together with clinical practice.

**Key Words** : Responsibilit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linical Competence,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은 인간을 대상으로 전인간호에 그 목적을 두

고 있으며 이론과 임상실무를 중심으로 하는 학문이다

[1]. 간호교육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이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의료현장에서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를 배출하는데 있으며 이론적 지식교육과 임상실습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임상수행능력을 습득하는 것이다[2]. 임상실습은 간호대학생에게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임상실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가치관, 태도, 전문간호사로서의 역할을 학습하게 하는 중요한 간호교육과정을 말한다[1,3].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는 2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 영역에서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성과로, 임상에서 필요한 수행능력으로 핵심기본간호술을 인증평가 기준으로 하였다[4]. 또한 간호의 실무능력을 갖추기 위해 1,0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 이수를 간호사 국가고시 면허시험 응시의 필수 조건으로 지정하였다[4].

간호사는 자신의 간호행위를 통해 사회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자에 대한 간호는 간호사의 책임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개념이다[5]. 대한간호협회의 한국간호사 윤리지침에는 간호사의 전문직으로서의 윤리로 사회정의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역할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6] 대학에서의 간호교육은 예비간호사가 건강에 대한 책임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간호대학생이 책임성에 대한 의미를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7].

오늘날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질환으로 사회, 경제, 정치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환경에도 변화가 있어[8] 간호교육에서도 건강관리자로서 간호대학생에게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훈련과정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요구되고 있다[9].

간호사는 전문의료인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돌봄제공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보건의료에서 간호사의 책임성은 중요시되고 있다[10].

간호대학생의 책임성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의 책임성은 개인적 특성과 전공교육만족, 전문직관, 사회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며[11], 셀프리더십과 간호전문직관이 책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2]. 다른 전공계열 대학생의 책임성에 관한 연구에서 전공에 따라 사회계열의 대학생이 공학계열의 대학생에 비해 책임성 의무와 태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3]. 간호대학생의 책임성은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높게 나타났고 전공

교육만족도가 높을수록 책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11], 대학생의 전공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전문직관 등이 책임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어진 상황에서 간호사가 무엇을 행동해야 하는지 판단을 내리게 하는 과정인 비판적 사고는 성향과 기술로 개념화할 수 있다[14]. 또한 비판적 사고는 간호실무에서 전문적 책임과 간호수행에 필수적인 요소로[15], 이해력과 대처능력과 대안을 제시하며 나아가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상황에 맞는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16]. 특히 비판적 사고는 간호대학생 때부터 갖춰져야 할 매우 중요한 핵심 역량이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비판적 사고성향[17-20], 임상실습만족도[20,21], 임상실습스트레스[18], 전문직 자아개념[1], 자기주도적 학습[17,22],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다[18-20].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책임성과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을 함께 살펴본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므로 임상실습 수료 시점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책임성과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수행능력과의 관련성을 확인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책임성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실습을 수료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책임성과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의 관계를 확인하고 간호대학생의 책임성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함이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수료한 간호대학생의 책임성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B 광역시 소재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학생으로, 모든 실습교과목의 임상실습을 수료한 시점에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자 수는 G power program 3.1.9.2를 이용하였으며, 회귀분석을 기준으로 예측요인 9개,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중간효과크기 .15로 양측검정 하였을 때 필요한 최소 표본 수는 114명으로 산출되었다. 탈락률 10%를 고려한 12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122부를 회수하였고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 3부를 제외하여 총 119명을 최종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2019년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연구내용을 설명하였다. 동의서의 내용은 연구목적과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비밀 보장 및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그와 관련된 어떠한 불이익도 없고 연구결과를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 2.3 연구 도구

### 2.3.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종교, 성적, 학업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술기자신감의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2.3.2 책임성

책임성은 Conrad & Hedin[23]이 개발한 도구로 Kim[25]이 한국적 상황에 맞게 변안한 청소년의 대인 및 사회적 책임성 도구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아주 그렇다' 5점까지이며 총 27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 5개 영역으로 책임성 태도 5문항, 책임성 의무 5문항, 책임성 능력 3문항, 책임성 효능감 7문항, 책임성 수행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책임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24]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69~.78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85이었다.

### 2.3.3 비판적 사고성향

비판적 사고성향은 Yoon[25]이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로 측정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총 27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 7개 영역으로 건전한 회의성 4문항, 지적 공정성 4문항, 객관성 3문항, 체계성 3문항, 신중성 4문항, 지적열정/호기심 5문항, 자신감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번, 14번 문항은 역 환산 처리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Yoon[26]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4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88이었다.

### 2.3.4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은 Lee 등[26]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Yang & Park[27]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으며 모든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총 19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 6개 영역으로 간호과정 능력 4문항, 직접간호중재 수행 능력 4문항, 사회심리적 간호 능력 3문항, 환자교육 능력 3문항, 기본간호 수행 능력 3문항, 신체사정 및 환자 모니터링 능력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Yang & Park[27]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80이었다.

## 2.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책임성,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의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책임성,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는 t-test 및 ANOVA,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책임성, 비판적 사고성향 및 임상수행능력의 상관정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임상수행능력 영향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학생이 109명(91.6%)으로 대부분이었고, 평균 연령은

23.02세이었다. 종교가 없는 학생이 87명(73.1%)으로 많았고 성적은 평균평점 4.5점 만점에 2.5~3.5점이 91명(76.5%)으로 가장 많았다. 학업만족도는 '만족' 응답이 60명(50.4%), 임상실습만족도는 '만족' 응답이 71명(59.7%), 간호술기자신감은 '강함' 응답이 73명(61.3%)으로 가장 많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19)**

Characteristics		n (%)	M±SD (Range)
Gender	male	10 (8.4)	23.02±2.05 (21-32)
	female	109 (91.6)	
Age	21	5 (4.2)	
	22	72 (60.5)	
	≥ 23	42 (35.3)	
Religion	Yes	32 (26.9)	
	No	87 (73.1)	
Academic record	≤ 2.5	12 (10.1)	
	2.5~3.5	91 (76.5)	
	≥ 3.5	16 (13.4)	
Academic satisfaction	Dissatisfied	8 (6.7)	
	Average	51 (42.9)	
	Satisfied	60 (50.4)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Dissatisfied	5 (4.2)	
	Average	43 (36.1)	
	Satisfied	71 (59.7)	
Confidence in nursing skills	Weak	6 (5.1)	
	Average	40 (33.6)	
	Strong	73 (61.3)	

**3.2 대상자의 책임성,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수행능력 정도**

대상자의 책임성,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책임성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71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은 책임성 태도 3.70점, 책임성 의무 3.74점, 책임성 능력 3.58점, 책임성 효능감 3.69점, 책임성 수행 3.77점으로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경향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76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은 건전한 회의성 3.75점, 지적 공정성 3.89점, 객관성 3.73점, 체계성 3.70점, 신중성 3.76점, 지적열정/호기심 3.72점, 자신감 3.78점으로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 정도는 5점 만점에 3.74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은 간호과정 능력 3.80점, 직접간호중재 수행능력 3.78점, 사회심리적 간호능력 3.82점, 환자교육능력 3.75점, 기본간호 수행능력 3.43점, 신체 사정 및 환자 모니터링 능력 3.89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Level of Responsibilit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 Clinical Competence of Participants (N=119)**

Characteristics	M±SD	Range
Responsibility	3.71±0.35	2.52-4.74
Attitude	3.70±0.47	2.00-5.00
Duty	3.74±0.44	2.60-4.80
Ability	3.58±0.51	2.33-5.00
Efficacy	3.69±0.43	2.29-4.71
Practice	3.77±0.46	2.57-5.00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3.76±0.34	3.04-4.74
skepticism	3.75±0.41	2.75-5.00
Intellectual fairness	3.89±0.43	2.75-5.00
Objectivity	3.73±0.54	2.33-5.00
Systematics	3.70±0.54	2.33-5.00
Watchfulness	3.76±0.46	2.75-5.00
Intellectual passion/curiosity	3.72±0.42	3.00-4.60
Confidence	3.78±0.48	2.50-5.00
Clinical Competence	3.74±0.30	3.00-4.58
Nursing process ability	3.80±0.42	2.75-5.00
Ability to perform direct nursing intervention	3.78±0.43	2.75-4.75
Social psychological nursing skills	3.82±0.47	2.67-5.00
Patient education ability	3.75±0.51	2.67-5.00
Basic nursing practice ability	3.43±0.39	2.67-4.67
Physical assessment and patient monitoring ability	3.89±0.47	3.00-5.00

**3.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은 학업만족도 (F=8.99, p<.001), 임상실습만족도(F=12.59, p<.001), 간호술기자신감(F=9.53,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업만족도는 '만족하지 못함'과 '보통' 응답보다 '만족'이라고 응답한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만족도는 '만족하지 못함'보다 '만족'이라고 응답한 간호대학생이, 간호술기자신감은 '약함'과 '보통'보다 '강함'이라고 응답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Difference of Clinical Competen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19)**

Characteristics		Clinical Competency	
		M±SD	t or F (p)
Gender	male	3.88±0.25	1.51 (.132)
	female	3.73±0.30	
Age	21	3.71±0.09	1.32 (.724)
	22	3.76±0.29	
	≥ 23	3.71±0.32	
Religion	Yes	3.80±0.08	1.58 (.320)
	No	3.78±0.09	
Academic record	≤ 2.5	3.79±0.25	2.65 (.074)
	2.5~3.5	3.73±0.31	
	≥ 3.5	3.84±0.21	

(Continued)

Table 3. Difference of Clinical Competen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19)

Characteristics		Clinical Competency	
		M±SD	t or F (p)
Academic satisfaction	Dissatisfied <sup>a</sup>	3.65±0.30	8.99 ( $<.001$ ) (a,b,c)
	Average <sup>b</sup>	3.64±0.31	
	Satisfied <sup>c</sup>	3.85±0.25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Dissatisfied <sup>a</sup>	3.72±0.30	12.59 ( $<.001$ ) (a,c)
	Average <sup>b</sup>	3.83±0.32	
	Satisfied <sup>c</sup>	3.99±0.25	
Confidence in nursing skills	Weak <sup>a</sup>	3.58±0.34	9.53 ( $<.001$ ) (a,b,c)
	Average <sup>b</sup>	3.60±0.36	
	Strong <sup>c</sup>	4.03±0.22	

3.4 대상자의 책임성, 비판적 사고성향 및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

대상자의 책임성, 비판적 사고성향 및 임상수행능력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은 책임성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r=.53, p<.001$ ), 비판적 사고성향과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r=.71, p<.001$ )가 있었다. 책임성과 비판적 사고성향과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r=.25, p=.012$ ). 즉 책임성이 높을수록 비판적 성향이 강할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rrelations among Responsibilit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N=119)

Variable	Responsibilit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linical Competence
	r (p)		
Responsibility	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25(.012)	1	
Clinical Competence	.53( $<.001$ )	.71( $<.001$ )	1

3.5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

임상수행능력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에 앞서 회귀분석 모형의 적합성 검정을 위하여 등분산성, 잔차의 정규성, 독립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등분산성, 잔차의 정규성, 독립성 검정을 만족하여 본 연구의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 정도에 대한 차이 검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학업만족도,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술기자신감 3개 변수와 임상수행능력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책임성, 비판적 사고성향 2개 변수를 포함한 총 5개의 변수

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이들 변수 중 주관적 학업만족도(만족하지 못함=0), 임상실습만족도(만족하지 못함=0), 간호술기자신감(약함=0)은 가변수(dummy variables)로 처리하였다.

회귀모형은 유의하게 나타났고( $F=61.65, p<.001$ ),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는 0.64~0.94로 1.0이하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04~1.82로 10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자기상관성 검증에서는 Durbin-Watson 통계량이 1.91로 2에 가까워 각 독립변수 간의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판적 사고성향( $\beta=.56, p<.001$ ), 책임성( $\beta=.32, p<.001$ ), 임상실습만족도( $\beta=.13, p=.012$ ) 순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수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52% 설명하였다. 즉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책임성이 높을수록, 임상실습에 대해 만족할 경우 임상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Clinical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who have Completed Clinical Practice (N=119)

Variable	B	SE	$\beta$	t (p)
Constant	1.01	0.19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0.47	0.07	.56	7.08 ( $<.001$ )***
Responsibility	0.27	0.06	.32	4.26 ( $<.001$ )***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0.15	0.07	.13	2.57 (.012)*
$R^2=.532, \text{Adj } R^2=.520, F=61.65, p<.001$				

†Dummy variables

4. 논의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수료한 간호대학생의 책임성과 비판적 사고성향을 파악하고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은 비판적 사고성향과 책임성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임상수행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판적 사고성향, 책임성, 임상실습만족도 순이었다.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

과 같이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의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76점이었으며 Kim[28] 연구에서의 3.66점보다 다소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대상자가 4학년 간호대학생으로 모든 실습교과목의 임상실습을 수료한 시점에서 평가되어 상대적으로 높게 결과가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비판적 사고성향의 하부영역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지적공정성'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체계성'이 가장 낮게 나타나 Kim[2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이는 간호교육이 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려는 '지적공정성'은 있지만 논리적으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체계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진다[17,20].

간호대학생의 책임성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71점으로 Kim, Lee & Han[11]의 연구에서 3.39점, Han[12]의 연구에서 3.64보다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다. 각 하위영역별 요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책임성 수행'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 '책임성 의무' 순이며, 가장 낮은 점수는 '책임성 능력'으로 Kim, Lee & Han[11]연구에서도 '책임성 수행'과 '책임성 의무'는 높게 나왔으나 '책임성 능력'은 낮다는 같은 결과가 나왔다.

간호학과 특성상, 인간생명존중에 대한 책임성 강조와 생명윤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결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책임성 능력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Bang[13]의 연구에서 사회계열의 대학생이 공학계열의 대학생에 비해 '책임성 의무'와 '책임성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공계열에 따른 책임성에 대한 차이에 대한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임상수행능력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3.74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won[17]의 연구에서는 3.48점, Shin[30]의 연구에서는 3.45점보다 다소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가 임상실습을 수료한 시점의 4학년 간호대학생으로 임상실습 후의 임상수행능력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임상수행능력은 이론교육과 임상경험을 통하여 획득되는 능력으로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임상실습교육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은 책임성과 비판적 사고

성향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hung[19], Kim[28]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은 유의한 상관성을 갖는다는 같은 결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확인된 간호대학생의 책임성과 비판적 사고성향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어 선행연구와의 비교가 어렵지만 간호대학생의 책임성 향상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고려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전공교과목에서 사회참여와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비교과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간호사 이미지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간호 전문직 자아개념 형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비판적 사고성향이 나타났다. 이는 Kwon[17], Yang[21], Kim[28]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로 확인되었다. 전통 강의방법으로 수업한 학생에 비해 문제중심 학습방법으로 수업을 받은 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점수가 높게 나타난 연구 결과[29]에서 알 수 있듯이 비판적 사고성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간호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인은 책임성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책임성과 임상수행능력을 비교한 선행연구가 전문학 상태에서 본 연구의 결과 책임성이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간호사의 책임성은 환자에 대한 돌봄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므로 추후 책임성과 관련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임상실습만족도가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은 임상실습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Kim[2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전공교육만족도가 높을수록 책임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와[11] 본 연구에서 책임성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만족을 통해 간호사 직업을 잘 이해 할 수 있으며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직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한다[29]. 임상수행능력은 단기간에 쉽게 습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상실습만족도 뿐만 아니라 학업 만족도와 간호술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학생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건강요구에 따른 다양한 건강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무지식, 태도, 가치뿐만 아니라 책임성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이에 간호교육에 있어서 책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비판적 사고성향과 책임성, 임상실습 만족도가 나타났으며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책임성은 임상수행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책임성이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미래 보건의료환경을 책임질 예비간호사가 졸업 후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간호대학생을 위한 책임성과 비판적 사고성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육이 임상실습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책임성과 비판적 사고성향 및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능력은 책임성과 비판적 사고성향에서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비판적 사고성향( $\beta=.56$ )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책임성( $\beta=.32$ ), 임상실습만족도( $\beta=.13$ )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52%이었다. 이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책임성과 비판적 사고성향 강화를 위한 간호교육이 임상실습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권장한다. 본 연구는 일개 대학의 임상실습을 수료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따른다. 향후 표본 수를 확대하여 임상수행능력의 결정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다른 변인들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 REFERENCES

- [1] E. J. Yeun, Y. M. Kwon, & O. H. Ahn. (2005).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6), 1091-1100.
- [2] M. S. Choi. (2005).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teaching effectiveness of clinical nursing education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3] J. A. Yee. (2004). A Study on the Image of Nurses and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0(3), 325-334.
- [4]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2). *Accreditation assessment standards for education of Korea(the course of the nursing bachelor's degree)*. <http://kabon.or.kr/kabon02/120120319133351.pdf>
- [5] H. Chahal & S. Mehta (2010).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organisational citizenship behaviour(OCB): A Conceptual framework in reference to Health care sector. *Journal of Services Research*, 10(2), 25-44.
- [6] [http://www.koreanurse.or.kr/about\\_KNA/ethics.php](http://www.koreanurse.or.kr/about_KNA/ethics.php)
- [7] M. A. Kelley, A. Connor, K. E. Kun & M. E. Salmon. (2008). Social responsibility: conceptualization and embodiment in a school of nursing.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5(1), 1-16. DOI : 10.2202/1548-923X.1607
- [8] S. M. Kim. (2020). Analysis of Press Articles in Korean Media on Online Education related to COVID-19.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21(6), 1091-1100. DOI : 10.9728/dcs.2020.21.6.1091
- [9] Y. K. Cha. (2020). The substantial content and current significance of revised 「HIGHER EDUCATION ACT」 for the unified four-year Bachelor in nursing. *Journal of Law of Education*, 32(3), 125-163.
- [10] R. G. Hanks. (2013). Social advocacy: A Call for nursing action. *Pastoral Psychology*, 62, 163-173. DOI : 10.1007/s11089-011-0404-1

- [11] J. G. Kim, T. W. Lee & N. K. Han. (2018). Factors affecting the Perception of Social Responsi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4(1), 21-29.
- [12] J. R. Han. (2019).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Social Responsi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5), 311-318.
- [13] D. H. Bang. (2013). *Human rights awareness and social responsi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the effect on attitudes toward persons with disabilities*.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 [14] N. C. Facione, P. A. Facione. & C. A. Giancarlo (1994).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s a Measure of Competent Clinical Judgment: The Development of the Californi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ventory. *Th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3(8), 345-350.
- [15] M. G. Rubenfeld & B. K. Scheffer. (1999). *Critical Thinking in Nursing: an interactive approach*. Philadelphia: Lippincott.
- [16] W. M. Daly. (1998). Critical thinking as an outcome of nursing education. What is it? Why is it important to nursing practic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8(2), 323-331.
- [17] M. S. Kwon. (2011). The Influence of Self-directed Learning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3), 387-394.
- [18] B. J. Park, S. J. Park & H. Cho.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and the nursing profess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7), 220-227.
- [19] S. K. Chaung. (201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8(1), 71-78.
- [20] H. J. Jang & Y. K. Kwag. (2013). Affecting Factors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9), 4380-4387.
- [21] J. J. Yang. (2009). The Influencing Factors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5(2), 159-165.
- [22] J. J. Yang & M. Y. Park. (2004). The Relationship of Clinical Competency and Self-directed Learning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0(2), 271-277.
- [23] D. Conrad & D. Hedin. (1985). *Instruments and Scoring Guide of the Experiential Education Project*. University of Minnesota. Center for Youth Development and Research. <https://digitalcommons.unomaha.edu/slceslgen/247>
- [24] J. S. Kim. (2000). *The Impact of Youth Service Learning on the Development of Personal and Social Responsibility*. Doctoral dissertation. Myong Ji University, Seoul.
- [25] J. Yoon. (2004).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the Measuremen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 Nursing*.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Seoul.
- [26] W. H. Lee, J. J. Kim, J. S. Yoo, H. K. Her, K. S. Kim, & S. M. Yim(1990).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easuring tools for college students' Clinical Competence. *Yonsei University Nursing Journal*, 13, 17-29.
- [27] J. J. Yang & M. Y. Park. (2004). The Relationship of Clinical Competency and Self-directed Learning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0(2), 271-277.
- [28] M. Y. Kim. (2015). Affecting Factors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3), 1884-1893.
- [29] C. Ozturk, G., K., Muslu & A. Dicle, (2008). A comparison of problem-based and traditional education on nursing student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Nurse Education Today*, 28(5), 627-632. DOI : 10.1016/j.nedt.2007.10.001.
- [30] K. A. Shin & B. H. Cho. (2012). "Professional self-concep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3), 413-422. DOI : 10.7739/jkafn.2012.19.1.046



이 은 숙(Eun-Sook Lee)

[정회원]



- 1992년 2월 :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1997년 2월 :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간호석사)
- 2014년 2월 :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간호박사)
- 2016년 2월 ~ 현재 : 동의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인 및 노인간호, 여성건강간호, 중환자간호
- E-Mail : amapola@deu.ac.kr

장 은 실(Eun-Sil Jang)

[정회원]



- 1986년 2월 :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2006년 8월 :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간호석사)
- 2013년 2월 :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간호박사)

- 2014년 9월 ~ 현재 : 경남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인 및 노인간호, 호스피스간호, 다문화간호
- E-Mail : es528@kyungnam.ac.kr